

미국의 시멘트市場

安 圭 文
 <(株)雙龍 시멘트건설부장>

1. 서 론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시멘트 업계는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미국이 단일국가로서 광대하고 특별한 규제가 없는 시장일뿐만 아니라, 대서양과 태평양에 접한 지정학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운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유럽 및 아시아의 시멘트 업체에게는 수출관심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70년부터 스페인 및 그리스, 프랑스 등 유럽산 시멘트가 반입되기 시작한 이래 1980년대에는 일본 및 대만, 한국 등 극동아시아산 시멘트가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미국 시멘트업계에 해외자본이 독자적 혹은 합작을 통해 침투하였고,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대규모의 인수 및 합병(M & A)으로 이어져 1993년말 현재 미국 전체 시멘트 생산능력의 2/3가 해외자본이며, 특히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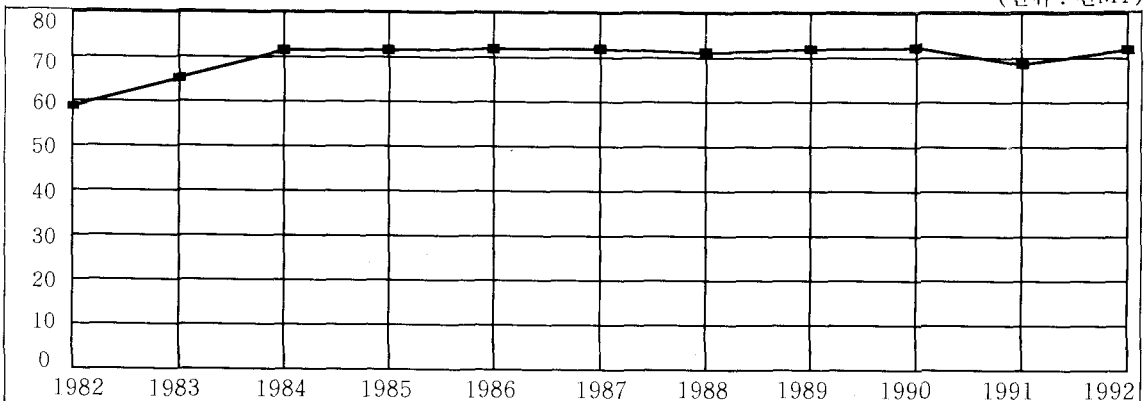
부지역은 약 80%의 외국계 자본(일본, 한국, 프랑스, 벨기에 등)이 침투해 있다.

그러나, 1980년대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은 업체간의 시장쟁탈경쟁을 초래하였고, 국내 업계보호를 위해 저가의 외국산 수입시멘트 유입을 배제하기 위한 반덤핑 활동을 강화하여 결국에는 1990년과 1991년에 일본산과 멕시코산 수입시멘트에 대해 각각 덤핑으로 판정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고, 콜롬비아산에는 덤핑판정 직전,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는등 규제가 시행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쌍용이 1982년에 시멘트를 최초 공급한 이래 서부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1988년에는 54만톤을 수출하였고, 동시점에 시멘트 터미널을 설립, 한국산 시멘트의 현지 유통판매에 참여하였고, 1991년에는 캘리포니아 소재 일련 시멘트공장인 리버사이드시멘트社 생산공장의 지

<표-1> 1980년대 이후 시멘트 생산량 추이

(단위 : 천MT)



〈표-2〉 미국 주요 시멘트업체 현황

순 위	회 사 명	국 적	생산능력(천톤)	시장점유율(%)	비 고
1	홀 남 (HOLNAM)	스 위 스	11,539	12.7	박스크로우 포함
2	라 파 쥐 (LAFARGE)	프 랑 스	9,650	10.6	
3	애 쉬 그로 브 (ASH-GROVE)	미 국	5,727	6.3	노스 텍사스 포함
4	사 우 스 다 운 (SOUTH DOWN)	미 국	5,636	6.2	
5	리 하 이 (LEHIGH)	독 일	5,460	6.0	칼라 베라스 포함
6	에 스 록 (ESSROC)	이 태 리	4,142	4.6	
7	론 스타 (LONE STAR)	미 국	4,127	4.5	
8	블 루 씨 클 (BLUE-CIRCLE)	영 국	3,925	4.3	

※ 자료원 : PORTLAND CEMENT ASSOCIATION

분을 인수, 현지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경기가 회복국면에 있고, 향후 캘리포니아 지역도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이 경우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필수적으로 보여지며, 반덤핑 관세를 포함한 정부의 제제조치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2. 본 론

1) 생산업체 현황 및 소유 구조

미국 시멘트 생산능력은 116개 공장에서 약 9천 7백만톤에 이른다.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전체의 시멘트 생산량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그후 1990년까지 큰 변동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 등으로 신규공장 및 설비개체등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내에서 외국시멘트회사의 영향은 수입에 의한 시장침투 뿐만 아니라, 자본투자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1973년 이전만 하더라도 스위스의 홀더뱅크(HOLDER-BANK)사만이 미국내에서 직접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전체생산능력의 2/3를 외국계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분의 시멘트업체들이 미국내 시멘트생산 및 영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즉, 스위스의 홀더뱅크(HOLDER-BANK), 프랑스의 라파쥐(LAFARGE), 영국의 블루 씨클(BLUE CIRCLE), 이태리의 이탈시멘티(ITALCEMENTI),

한국의 쌍용, 일본의 오노다(ONODA)와 미쯔비시(MISUBISHI) 등이 그 예이다.

〈표-2〉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내 업체별 시멘트생산 능력은 다수의 외국계 시멘트 회사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시장점유율 2퍼센트 이상의 미국계 회사로는 사우스다운(SOUTH-DOWN) 및 애쉬그로브(ASH-GROVE), 론스타(LONESTAR), 텍사스(TEXAS), 메두사(ME-DUSA)등에 불과하다. 이는 1977년 이래로 유럽 및 아시아계의 시멘트회사들이 미국을 시멘트투자 지역으로 선정, 과감한 자본 투자를 한 결과이다.

미국이 외국 시멘트업체에 투자적정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미 달러화의 환율, 막대한 건설 및 경제 규모, 정치적인 안정성, 성장 잠재력 등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외국의 시멘트업체들은 미국을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투자한 결과 궁극적으로 소유구조의 변혁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수요

시멘트 수요는 대체적으로 주기적이며 건설경기 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경제성장율의 변동이 컸다. 비교적 소폭의 경기침체로 시작된 1990년대에는 과거 20년간에 비해 낮은 인플레이션을 및 이자율이 유지되었고, 연방지불준비위원회(FRB:FEDRAL RESERVE BOARD)에서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 부진을 감수하더라도 낮은 이자율을 고수하려는 정책을 유지하였고 경제 및 건설 경기, 시멘트 수요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1980년대에 레이건대통령과 부시대통령 집권 기간동안에는 경기를 현상유지할 수준으로 공공부문 지출을 증가시켰고,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기간산업에 예산을 투자코자 시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부의 계속된 재정적자는 시멘트 수요증가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3) 수입

1963년부터 1983년까지의 기간동안 미국은 전체 수요중 평균 4.4%를 수입에 의해 조달하였으며, 1984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평균 14.7%를 수입을 통해 조달하였다.

시멘트 수입은 내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루어 졌으며, 불경기에는 역시 수입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 전체 시멘트수입의 3/4이 시멘트회사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수출국은 접경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등을 포함한 북남미 국가는 물론 스페인과 그리스 등의 유럽국가를 망라하고 있다.

1982년 이후 미국에서 시멘트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아래의 몇가지에 기인한다.

- 미 달러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입시 가격경쟁력 확보가능
- 불경기가 종료되면 건설경기 및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
- 유럽 및 중동, 아시아지역의 완만한 수요증가 추세
- 1970년대의 경기상승기간동안 설치된 신규 KILN 생산분의 1980년대 접어들어 경기상승 추세종료후 잉여공급능력
- 해상 운임
- 플로팅사일로선박(FLOATING SILO VES-

SEL) 및 하역 설비 개발 등의 기술적 진보 등이 수입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4) 반덤핑 관세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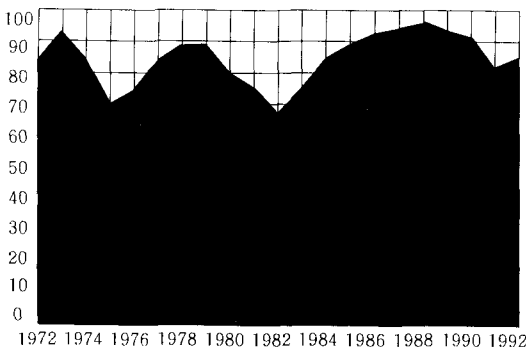
1980년대의 급격한 수입 증가는 시멘트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였고, 동시에 국내업체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레이건 대통령의 자유시장정책 및 규제완화정책을 포함한 자유시장의 이상은 더욱 경쟁을 부채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초에 수입시멘트에 제기된 시멘트업체들의 덤핑제소는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러한 덤핑제소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결과적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과 1991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멕시코산 및 일본산 시멘트에 대하여 "덤핑", 즉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판매되었다고 판정하여 50퍼센트 이상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고, 1991년에는 베네수엘라산 시멘트의 수입에 대해서도 최저수입가격(PRICE UNDERTAKING)을 적용, 시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입가격의 상승은 물론 수입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운임의 상승, 미달러화의 평가절하, 미국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져, 수입의 채산성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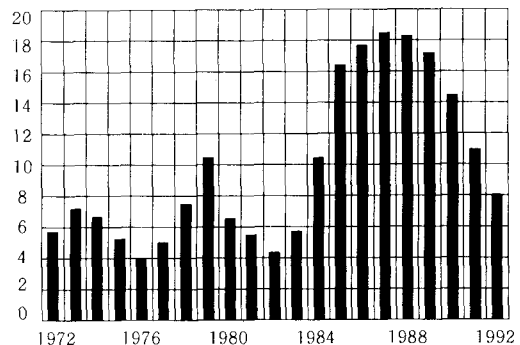
5) 시멘트 원가와 신기술 도입

시멘트는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중의 하나이다. 1970년대 원유가격의 급등은 비효율적인 구형 설비의 개체를 불가피하게 했으며, 사용연료도 천연가스 및 석탄, 코우크스까지 다양해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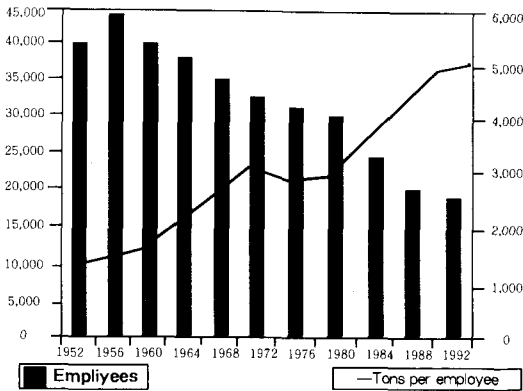
〈표-3〉 시멘트 수요 추이



〈표-4〉 수요중 수입시멘트 비중 추이



〈표-5〉 시멘트 업체의 종업원 수와 노동생산성의 추이



폐열활용도 증가하였다. 1985년 유가폭락은 대형 킬른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고, 시멘트생산설비 제조업체들도 전력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분쇄밀(GRINDING MILL)과 대형예열기(PREHEATER)가 등장하였다. 또한 자동화설비가 개발되어 설치됨으로서 인원감소를 통한 인건비 절감을 가능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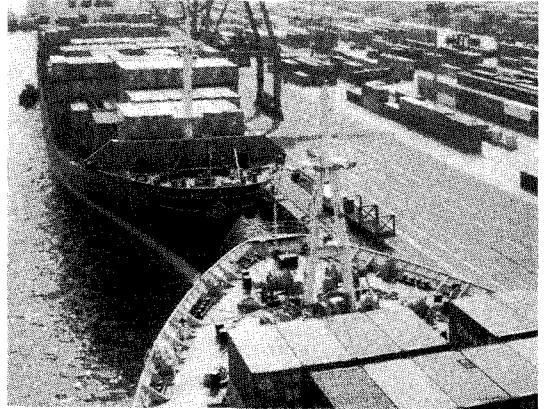
1980년대 시멘트생산공정에서 획기적인 변화중의 하나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단위시멘트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이 1980년 0.713시간에서 1990년에는 0.420시간으로 41% 감소하였으며, 노사간의 관계가 더욱 우호적으로 개선되어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였다.

1990년대에도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업체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신설공장은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6) 가격과 이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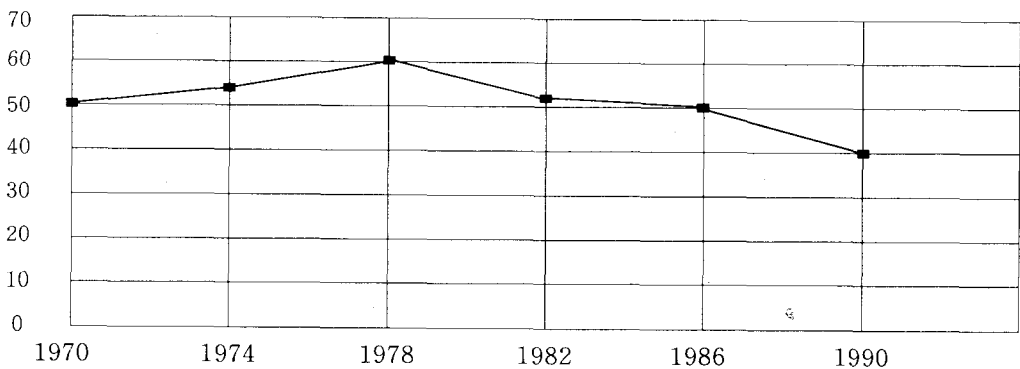
시멘트가격은 타 품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



급,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이 된다. 시멘트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지만 미국에서는 비교적 수익성이 크지 못하다. 즉, 미국에서의 시멘트사업의 수익은 장단기를 불문하고 평균수준 이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국의 시멘트사업이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가격과 호황기동안 축적한 이윤때문이며 이를 통해 불황기동안의 적자를 충당함은 물론 신규설비 설치와 구형설비 개체를 가능케 하였다.

1970년대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오던 시멘트 가격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멘트업체들이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호황기동안 고수익을 시현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자체노력을 통하여 원가절감을 이루었고, 결과적으로 낮은 시장 가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표-6〉 미국 시멘트 가격 추이



* U\$: 1982년 불변 가격기준

미국은 개방되어 있는 최대시멘트시장중의 하나이며, 최대수입국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낮은 가격과 이윤은 외국시멘트의 수입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며, 시멘트 생산설비에 대한 국내자본투자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1990년대에도 가격과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멘트업체들의 수입시멘트에 대한 반덤핑 등의 대응활동은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7) 나프타(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의 시멘트를 논할 때 캐나다와 멕시코는 타 국가와는 별개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들은 미국과 남과 북으로 접하여 북미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로 간에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시멘트회사들이 미국내 시멘트관련자산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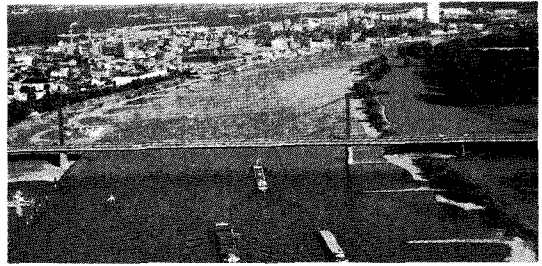
1993년 11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나프타에 대한 의회의 비준을 받음에 따라 1994년 1월부터 3개국은 통일된 단일한 무역지대로 통합이 되었다. 시멘트무역에 있어 3개국간에는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기 때문에 나프타로 인한 영향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나 3개국간의 단일무역지대로의 통합은 그들의 경제를 통합시키고, 시멘트 무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1990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부터 덤핑판정을 받은 멕시코산 시멘트의 경우, 멕시코의 시멘트 업체들은 미국의 반덤핑규정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1992년 관세일반무역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판정을 내세워 덤핑관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멕시코산 시멘트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고 하겠다.

8) 향후 시멘트시장 전망

1992년부터 회복추세로 돌아선 미국의 경기는 시멘트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의 표는 향후 몇년간의 수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2년 이후, 미국의 경제는 국민총생산(GDP)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반전이 되었고, 건설경기 역



(표-7) 수요추이 전망

	1993	1994	1995	1996	1997
수요(백만톤)	81.41	93.00	96.78	98.63	97.98
증 감 (%)	4.6	14.2	4.1	1.9	-0.7

시 비주거부문과 주거부문, 공공건설부문의 성장에 따라 소비의 증가를 가져왔다. 즉, 시멘트 소비량이 1991년의 76.4백만톤(SHORT TON, 이하 톤)에서 1993년의 81.4백만톤으로 10.7퍼센트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1994년에는 14.2퍼센트 증가한 93.0백만톤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1995년과 1996년에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 또한 거시적인 환경에서도 3퍼센트 내외로 전망되는 인플레이션율과 한자리 숫자의 장기금리 전망도 시멘트수요증가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경기가 하향추세로 접어들어 시멘트수요도 감소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 결 론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미국의 시멘트 시장은 미국 자체가 갖는 여러가지의 특징, 방대하고, 제한이 없고, 비교적 안전된 달러화 가치, 안정된 정치상황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시멘트 업체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선진국으로서 수요의 급격한 성장가능성은 없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업체에겐 수출시장으로, 투자지역으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비록 해외 및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시장여건이 악화되기도 했지만 현재 급격한 경제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활발한 신증설상황을 고려할때 향후에 잉여물량의 소비처로 미국시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등을 포함한 미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